

2023. 9. 3

제114권 36호

주일 1·2부 예배

오전7:30(1부),	오전9:00(2부)	인도자:신동영목사(1부), 정준환목사(2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송영찬	찬양대
교송	*서서 34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110
사죄의선언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앞아서 336장
기도	I부 이완섭 장로
봉헌 497장	II부 이성수 장로
봉헌송	*서서 213장(4절)	봉헌위원
봉헌기도	다같이
교회소식	*앞아서	담임목사
찬양	I부-오 주여 나의 아버지	살롬찬양대
	II부-나의 영원하신 기업	호산나찬양대
찬송 637장	다같이
성경	... 사도행전28:30~31(신약P.239)	담임목사
설교 【로마의 셋집】	담임목사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다같이
축도 송영	담임목사

주일 3부 예배

오전10:30	인도자:조경화목사
찬양	*서서 송축해 내 영혼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앞아서 336장
기도 전희봉장로
봉헌 497장
봉헌송	*서서 213장(4절)
봉헌기도 담임목사
교회소식	*앞아서
찬양 정결한 그릇
찬송 637장
성경봉독	... 사도행전28:30~31(신약P.239)
설교 담임목사

【로마의 셋집】

성도의교제 *서서 다 같이
 파송과위탁 다 같이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다 같이
축도	담임목사

†내주기도 : I부 - 장병익 장로 / II부 - 신동현 장로 / III부 - 임원수 장로
 청년예배 - 성혁청년 / 찬양 - 사봉권 집사 / 수요 - 권미향 권사
 †이달의 강단 꽃장식 : 표현창 조지용 박명희 김민정 김윤에 이규숙 김광수 김영순 권정희

*** 9월 예배위원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차량안내							
I	권중익	권순혁	김태섭	한숙경	이덕자	이천환	권영민	이상원	박연정	김은미	권대기	권태국
II	이성수	박정욱	이안희	김태희	김선정	박수미	권영대	지찬익	오경희	김정미	강성구	조금숙
III	김봉수	김경분	백은희	권명숙	이예진		오병수	박영미	도금숙	김인순	송예숙	김미순
IV	심재창	이주일	황재남	김윤경	천순선		서정순	김정임				
							최종일	이선영	민수명	송정아	박태훈	

주일4부예배 (오후12:00)

경배와 찬양 - 소리엘찬양단 / 목회기도·봉헌기도 - 담임목사
 설교 - 사도행전28:30~31(신약P.239) / 로마의 셋집 / 담임목사

주일5부예배-청년예배 (오후1:45) 인도자:정준환목사

기도 - 조현상청년
 설교 - 사도행전17:1~9(신약P.217) / 다시 또 사도행전 / 정준환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3:00) (로렙나무카페 봉사자 헌신예배) 인도자:서정자장로(로렙나무카페팀장)

경배와 찬양 - 새롭찬양단 / 찬송 - 462, 216, 54 / 기도 - 김선정집사(로렙나무카페총무) / 찬양 - 시은찬양대
 성경 - 골로새서2:6~7(신약P.325)-김선영집사(로렙나무카페팀원) / 뿌리깊은 영성의 삶 / 조경화목사

수요오전예배 (오전10:30)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특송 - 백합중창단
 설교 - 창세기2:8~17(구약P.2) / 1.에덴동산 / 담임목사

수요저녁예배 (오후7:30)

경배와 찬양 - 르비딤찬양단 / 기도 - 임은주권사 / 은혜나눔 - 이덕자권사 / 찬양 - 다비다찬양대
 설교 - 열왕기하5:20~27(구약P.569) / 69.게하시-탐욕에 무너진 사람 / 담임목사

목상노트

“ 로마의 셋집 ” (사도행전 28:30~31)

- _____의 셋집 (30)
 목상을 위한 질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방문하는 사람들 기쁨과 큰 사랑으로 영접한 것 같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는 사람을 사랑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 _____의 셋집 (31)
 목상을 위한 질문)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유일한 구원자이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거침없이’는 ‘장애물 없이’라는 의미이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때 어떤 장애물도 없이 순조로웠다 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는가?